

## 격려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기라성(綺羅星) 같은 불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국가사회에서 쌓아온 연륜과 전문적 식견으로 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한 자문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가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달려 있듯이 불교의 미래는 바로 불제자, 즉 사부대중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지도적 위치를 담당하는 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번 불교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불교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동량(棟樑)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성도 이후 지난 2600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으로 만 생명의 평화를 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 땅에 전래된 이후 1700여 년 동안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함은 물론, 인성의 가치와 정서의 밑바탕이 되어 민족의 정신세계를 구축하였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움으로써 민족종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한국불교는 커다란 좌절과 훼손을 겪어야 했고 이를 극복하고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불교는 그 청정함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 세기의 절반을 내적 정화에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불교는 우리 사회의 근대화와 역동적 발전에 주도적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사회가 기대한 역할마저 빈약해지고 말았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 민족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새로운 현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새로운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와 인류 기술의 집약체처럼 보였던 이 현실은 동시에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경제체계 속에서 인류가 공영의 길을 열 것처럼 여겨졌던 세계화는 이제 경쟁과 빈곤의 세계화는 물론 경제위기의 세계화를 만들어내며 공멸의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과 담론의 장에 불교가 선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극복해야 할 현안이자 숙고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실천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승속의 구분없이 수많은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오히려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륜과 전문적 식견으로 지도적 역할을 담보하신 재속의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지식(知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의미에 ‘벗’을 더하여 지식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 가운데 착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이를 선지식(善知識)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불교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선지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으로나, 착한 벗으로서의 지식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선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진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불교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불교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한 큰 숲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출발하는 불교포럼이 선지식들의 큰 숲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숲이 커야 호랑이가 산다고 했습니다. 먼저 큰 숲을 이루면 세상을 호령할 큰 호랑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종단의 앞날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대신합니다.

**불기2556년 1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